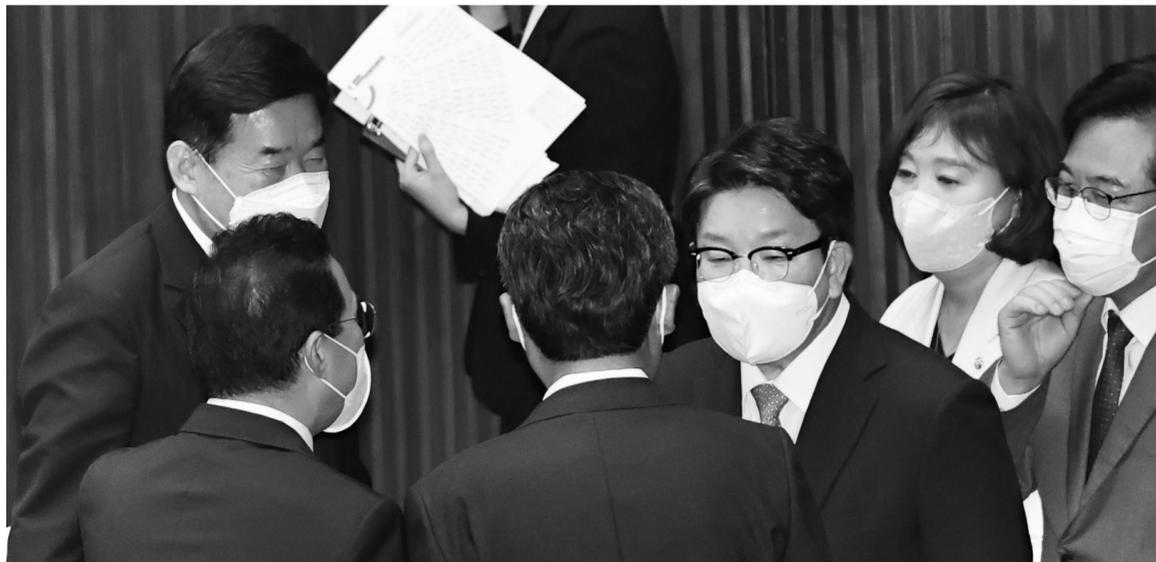


국회 파국 ‘선 의장 선출’ 카드로 극적 타결

여야, 진통 끝 본회의 직전 합의 개점휴업 35일만 정상화 물꼬 터 김창기 등 3인 인사검증 기회 날려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와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의 4일 국회 정상화 협상은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면서 파국 직전까지 내몰렸다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합의 불발시 단독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팽팽히 대치하던 여야는 본회의 개최 시각인 오후 2시가 임박해서야 ‘선 의장단 선출’에 합의하면서 비로소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트게 됐다.

지난 5월30일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종료된 이후 여야는 원 구성 협의에 나섰지만,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놓고 양보 없이 으르렁대기만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달 24일 애초 합의대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대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과 법사위 권한 개편 등을 요구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일언지하여

거절했다. 이에 민주당은 7일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고 의장 선출까지 밀어붙이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국민의힘이 극렬 반발하면서 국회에 전운이 짙게 드리웠다. 여야는 민주당이 의장 단독 선출 D데이로 설

정한 이날을 하루 앞둔 전날 늦은 밤까지 양당 원내대표 및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이어 갔으나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며

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오전에도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까지 진행된 협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결렬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등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양측 간 접촉조차 실종되며 이대로 파국으로 달려가는 듯했던 여야 원 구성 협상은 권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마친 낮 12시 15분께 “상임위원회 선출을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하는 것을 약속하면 의장단 선출에 협조할 것”이라는 역제안을 내놓자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핵심 쟁점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은 잠시 옆으로 밀어 놓고 일단 시급한 의장단 선출부터 하자는 제안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 직전 통화를 했고 박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의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을 내팽개쳤다는 비판에서 벗어나 통 큰 양보를 통해 협치를 이룬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게 됐고, 민주당으로서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부담스러운 입법 독주 프레임에서 탈출할 출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여야의 이해가 맞아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후 양당은 오후 1시30분 각각 의총을 열어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받았다.

곧이어 열린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경주·정진석 국회의장이 일사천리로 선출되면서 국회가 공백 상태로 접어든 지 35일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단이 구성됐다. /연합뉴스

“원전 우수성 알려…북핵 공조체계 확실히”

윤 대통령, 나토 순방 후속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의 순방 성과와 관련, “많은 국가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에 위기감을 갖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문제는 국내외가 따로 없다”며 “경제안보와 관련한 순방의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고, 대통령실이 부처와도 수시로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토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을 초청한 데 대해 “포괄적 안보협력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이 갖는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기서 말하는 포괄적 안보라는 것은 종래의 정치, 군사적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를 포함한, 우리에게 중요한 글로벌 이슈들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0여 개 국가와의 양자 회담을 통해서 원전, 방산, 반도체, 공급망 등 경제안보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논의를 했다”며 “우리 원전의 우수성, 안전성, 그리고 세계

에서 가장 값싼 원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렸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자유와 인권, 법치라고 하는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통해 평화와 번영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나토 회원국, 파트너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핵심 의제였던 북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한 공감대와 공조 체계를 확실히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가치와 규범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도 국내외 할 것 없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연내 공공기관장 70여명 물갈이 전망

정부가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연내 공공기관 70여개의 기관장이 바뀔 전망이다. 재무건전성 개선, 방만경영 해소 등을 두고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연내 기관장 교체 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을 통해 370개 공공기관(본부기관 350개·부설기관 20개)의 기관장 임기를 전수 조사한 결과, 연내 기관장 교체가 예정된 공공기관은 71개다.

기관 5개 중 1개꼴로 올해 기관장이 바뀌는 것이다. 71개 중 13개는 기관장이 이미 물려나 공석 상태다. 26개 기관은 기관장이 임기가 이미 만료됐으나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현 기관장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이미 임기가 만료된 기관 39개는 기관장을 당장 교체할 수 있다. 31개 기관은 기관장 임기가 올해 안에 끝난다. 임기 만료나 해임 건의로 연내 기관장 교체가 예상되는 기관은 모두 71개지만, 정부가 공공기관 고강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어 교체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최근 에너지 공기업 12개를 포함해 총 14개의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하고 재정건전화 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민주, 당대표·최고위원 분리선출

컷오프부터 민심 반영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28 전당대회에서도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기로 했다.

다만 선거인단 비중을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25%, 일반당원 5%’로 변경했다. 기존보다 대의원 투표 비중을 15%포인트 줄이는 대신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그만큼 늘린 것이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전당대회 룰을 확정했다.

안규백 전준위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분리 선출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의원 워크숍에서 그리고 당 안팎의 의견을 들었을 때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득표순으로 함께 뽑는) 순수지도체제로의 변경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다수 확인됐다”며 “변경할 이유가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하여서

는 대의원 비중을 현행 45%에서 30%로 낮추고,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10%에서 25%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예전대로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부여하기로 했다”며 “권리행사 시행일은 앞서 의결한 대로 올해 7월 1일”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당 대표 경선 흥행을 위해 예비경선 당선인 수를 (후보자가) 4인 이상일 경우 3인, 9인 이상일 때는 8인으로 정했다”며 “예비경선 투표시 당 대표는 1인 1표, 최고위원은 1인 2표를 적용하며,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준위는 예비경선 선거인단의 30%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앙위원만 예비경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안 위원장은 “수정안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예비경선 둘 다 적용된다”며 “후보 결정 단계에서부터 국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오리지널 두유 - 베지밀

베지밀 전속모델 강석우 내연신 부부

시니어의 여유는 건강에서!

베지밀 5060 시니어두유로 건강을 챙기세요

★신제품 출시★

국산 원재료 함유

시니어에 필요한 영양을 한팩에 - 하루세끼 건강메뉴

- 뼈 건강 위한 검온공, 고칼슘, 비타민D
- 건강유지 보호막 베타글루칸 이르기린
- 필수 단백질 효율 강화 메티오닌
- 항산화 영양성분 아연(가), 셀레늄(가)
- 두뇌구성 물질 오메가3
- 건강한 당 설계 결정과당, 올리고당

두유액 90% 함유(고당분 7% 이상) 190ml (20kcal)

1주 문의처 | 전국 어디서나 1577-0426 소필 트러스트 www.edaymail.com | 문의 및 고객센터 080-930-8888, (02)553-8888, www.vegemil.co.kr

● 서울-경기: 동부영양소 (03)950-4907, 북부영양소 (03)980-9382, 남부영양소 (03)281-6535, 관양영양소 (03)293-4999, 새마을영양소 (03)294-2205, 안양영양소 (03)295-4709, ● 광주영양소 (03)374-8921
● 충청영양소 (04)282-8801, ● 전북영양소 (06)324-5731, ● 전남영양소 (06)294-5001, ● 경북영양소 (05)359-3441, ● 경남영양소 (05)323-6531, ● 광주영양소 (05)475-4331, ● 부산영양소 (05)104-6561